

2) 빈회재발(頻回再發)이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20례중 14례(70%)에서 MCNS가 아니었다.

3) 연령이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47례중 육안적 혈뇨를 동반하였던 3례, 고혈압을 동반하였던 3례는 모두 MCNS가 아니었으며,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하였던 16례중 8례(50%), 빈회재발을 동반하였던 15례중 11례(73%)는 MCNS가 아니었다. 그러나 연령이외의 다른 적응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12례중 11례(92%)가 MCNS였고, 나머지 1례는 IgM Nephropathy였지만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보였다.

4) 혈뇨가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32례중 육안적 혈뇨인 경우가 7례 였으나 모두 MCNS가 아니었으며, 현미경적 혈뇨를 보였던 25례중 13례(52%)는 MCNS가 아니었다.

5) HBsAg 양성인 신생검의 적응증이었던 10례중 7례(70%)는 MCNS가 아니었다.

소아 신증후군의 신생검 적응증 중 육안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는 100%, 빈회재발을 보이는 경우는 70%, HBsAg 양성인 경우는 70%,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는 52%에서 MCNS가 아니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신생검을 시행하여야 하지만, 다른 적응증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발병연령이 늦은 것은 신생검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.

- 3 -

###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에서의 임상·병리학적 고찰

서울의대 소아과  
정해일·최 용·고광욱

병 리 과  
이 현 순·김 용 일

원발성 신증후군 소아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점근의 하나는 신조적 소견상 미소병변(MCL)과 그 이외의 병변을 구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치료방침의 결정 및 예후판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.

연자들은 신생검으로 병리조직학적 소견이 확인된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들에서 병리소견의 차이에 따른 임상소견의 차이를 비교하여, 임상소견을 가지고 병

리소견을 예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고찰을 시행하였다.

대상환아는 1975년 6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받은 329명의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들로서 이중 MCL이 57.4%로 가장 많았고 소상 분절성 사구체경화증(FSGS)가 21.0%, 중맥증식성 사구체신염(Mes PGN)이 4.9%, 막증식성 사구체신염(MPGN)이 3.3%를 차지하였다.

남녀비는 MPGN을 제외한 모든 병변에서 남아에 호발하였으며 MPGN과 막성 신병(MNP)의 경우 다른 병변에 비해 발병연령이 높았다. 발병시 동반된 혈뇨는 MPGN, MNP, Mes PGN 등에서 매우 빈번하였으며 고혈압은 MPGN, Mes PGN 및 소상 구성 사구체경화증(FSGS)에서, 고질소혈증은 MPGN에서 자주 동반되었다. 단백뇨의 선택성 지수는 MCL과 MNP 이외의 병변에서 불량하였고, 혈청보체 C<sub>3</sub>의 감소는 MPGN에서 특징적이었다.

첫 Steroid요법에 대한 반응은 MCL의 약 90%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으며 Mes PGN의 50%에서도 완전관해를 나타내었지만 나머지 병변에서는 대부분 불량한 반응을 보였다.

추적관찰중 신부전으로의 진행은 MPGN의 경우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으며 FSGS, FGGS, Mes PGN의 경우에도 상당수에서 신기능의 진행적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.

- 4 -

### 소아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이 임상적 고찰

연세의대 소아과  
김병길·이재승·양재승

병 리 과  
최 인 준

소아과 영역의 신증중 85% 이상이 미세변화형으로 이들은 대부분 Steroid에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 연세의대 소아과에서 과거 8년간 치료받은 168명의 미세변화형 신증 환자의 치료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90%인 151명이 Steroid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였